

# 고려의 주몽·동명 인식과 동명성왕 관념 성립

송영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박사과정수료, 한국고대사 전공  
greenyds@naver.com

- I. 머리말
- II.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주몽·동명 인식
- III.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시점
- IV. 고려의 동명성왕 관념 성립과 이유
- V. 맷음말

## I. 머리말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서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는 동명성왕(東明聖王)이며, 휘(諱)는 주몽(朱蒙)이라고 적시하였다.<sup>1)</sup> 반면 중국(中國) 정사(正史)에서는 부여(夫餘)의 시조가 동명(東明)이며, 고구려의 시조는 주몽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주몽과 동명이 동일인으로 나오지만, 중국 정사에서는 별개의 인물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정사에서 두 인물의 설화 형태는 유사하지만, 인명(人名)이나 지명(地名) 및 일부 사항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동명과 주몽이 별개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기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이 되었다. 문제는 왜 동명과 주몽이 동일인으로 인식되었고,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자의 일체화(一體化)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고구려 시대에 이미 일체화가 이행되었다는 견해이다.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 동명왕릉(東明王陵)을 조영한 이후에야 시호(謚號)와 장지(葬地)가 정해졌다고 보는 연구<sup>2)</sup>가 있으며, 장수왕대(長壽王代)<sup>3)</sup>에 동명성왕이라는 명칭이 성립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부여 계승 의식과 『신집(新集)』 편찬을 기준으로 동명성왕 명칭이 성립되었다는 설이 다수인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5세기 경<sup>4)</sup> · 문자명왕대(文咨明王代)<sup>5)</sup> · 영류왕대(榮留王代)<sup>6)</sup>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반면 고려 시대에 일체화가 이루어져 기록에 반영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즉 연개소문(淵蓋蘇文) 집권기 이후 고구려인들의 동명 후예 의식이 고조(高潮)되었고, 멸망 이후 어느 때 동명과 주몽이 결합된

1) 『三國史記』 卷13, 始祖 東明聖王 원년. “始祖 東明聖王 姓高氏 謚朱蒙[一云鄒牟 一云衆解]”

2) 高寬敏,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東京: 雄山閣, 1996), 118-134쪽(이원배, 「고구려 시조명 ‘東明’의 성립과정」, 『한국사연구』 제146집(2009), 3쪽에서 재인용).

3) 조경철,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4-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43집(2006), 9쪽.

4)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65쪽.

5) 이원배, 「고구려 시조명 ‘東明’의 성립과정」, 『한국사연구』 제146집(2009), 22쪽; 김수미, 「백제 시조 전승의 양상과 변화 원인」, 『歷史學研究』 제66집(2017), 22쪽.

6) 임기환,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제28집(2002), 37쪽; 정원주, 「高句麗 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高句麗渤海研究』 제33집(2009), 61-63쪽.

인식이 생성되어, 고려 초기 『구삼국사(舊三國史)』에 나타났다는 연구이다.<sup>7)</sup>

고구려 시대에 동명과 주몽의 일체화가 이루어져서 동명성왕 관념이 성립되었다는 견해는 고구려의 부여계승의식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다. 고구려 후기에 부여계 인물들이 고구려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부여계승의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고구려 왕실의 시조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집』 편찬 단계에서 주몽의 시호를 동명성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고구려 후기에 부여계승의식과 동명에 대한 존숭(尊崇) 의식이 확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지만, 동명성왕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고구려 멸망 이후의 금석문, 즉 「천남산 묘지명(泉男產墓誌銘)」에서 동명과 주몽이 별개의 인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또한 동명과 주몽으로 일치되었다면, 고구려인들의 시조 인식이 동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타당하지만,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서는 고구려인의 시조로 추모(鄒牟)가 거론된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서명(書名) 외에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는 『신집』을 근거로 든다는 점이다. 고구려 때에 동명성왕 관념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신집』 편찬 당시에 각 왕들의 존호(尊號)를 정했고, 주몽을 동명성왕으로 설정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신집』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고구려 왕들의 존호를 당시에 재설정하였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존하는 사료 중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수록된 『구삼국사』 일문(逸文)과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시조를 동명성왕으로 적시하였다. 즉 이른바 동명성왕의 존재는 『구삼국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고구려 시대에 동명성왕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동명성왕 관념은 고려 시대에 창조되어 『구삼국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동명성왕 관념의 형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및 주몽과 동명에 대한 관념을 각종 기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각종 기록과 시대 정황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 시대에 동명성

---

7) 李道學,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서경문화사, 2006), 80-89쪽.

왕 관념이 형성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 II.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주몽·동명 인식

고구려는 장수왕(長壽王) 이래로 국호를 고려로 개칭(改稱)하였다.<sup>8)</sup> 후삼국 시대의 궁예(弓裔)도 고구려의 재건을 주장하며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가 나중에는 마진(摩震)과 태봉(泰封)으로 변경하였다.<sup>9)</sup> 왕건(王建)은 다시 국호를 고려라고 명명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sup>10)</sup>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徐熙)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93년에 거란에서는 소손녕(蕭遜寧)을 파견하여 고려를 공격하였다. 이 당시 소손녕은 거란이 이미 고구려 구지(舊地)를 영유하였는데, 고려가 강계(疆界)를 침탈(侵奪)하므로 와서 정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1)</sup> 이에 고려 조정의 일각에서는 서경(西京) 이북의 영역을 내어주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서희는 삼각산(三角山) 이북은 모두 고구려 옛 땅이므로 영토 할양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소손녕과의 담판에 임해서는 고구려의 후계자이므로 국호(國號)를 고려라 하였고, 평양(平壤)을 국도(國都)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거란의 동경(東京)이 고려의 영토에 들어와야 한다는 역공을 펼쳤다.<sup>13)</sup>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은 비단 고려 내부의 인식으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식하였다. 『구오대사

8)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제19·20집(1992), 63쪽.

9) 金光洙,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제43집(1988), 92쪽.

10) 『高麗史』 卷1, 「世家」, 太祖 원년. “元年 夏六月 丙辰 卽位于布政殿 國號高麗 改元天授”

11) 『高麗史』 卷94, 「徐熙傳」. “熙引兵欲救蓬山 遜寧聲言 大朝既已奄有高勾麗舊地 今爾國侵奪疆界 是以來討”

12) 『高麗史』 卷94, 「徐熙傳」. “其聲言取高勾麗舊地者 實恐我也 今見其兵勢大盛 遽割西京以北與之 非計也 且三角山以北 亦高勾麗舊地 彼以谿壑之欲 貲之無厭 可盡與乎?”

13) 『高麗史』 卷94, 「徐熙傳」. “熙曰 非也 我國即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論地界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

(舊五代史)』에서는 고려의 전(前) 왕성(王姓)이 고씨(高氏)라고 하였으며,<sup>14)</sup>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도 당말(唐末)에는 그 왕성이 고씨였다고 기록하였다.<sup>15)</sup> 『송사(宋史)』에서는 고려의 본래 명칭이 고구려(高句驪)라 하였고,<sup>16)</sup> 『원사(元史)』에서도 당대(唐代)에 멸망하였으나,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에 왕건이 송악(松岳)에 천도하였다고 하였다.<sup>17)</sup>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왕씨(王氏)가 고려의 대족(大族)으로 국인(國人)들에 의해 군장(君長)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18)</sup> 이처럼 중국의 각종 사서에서는 고려와 고구려를 동일시하거나 계승 관계를 표기하였다. 국명(國名)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사신(使臣)의 교류를 통해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이 전래되었을 가능성 이 더 크다.

앞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이 확인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sup>19)</sup> 이 외에 신라 계승 의식도 존재되었다는 견해나,<sup>20)</sup> 고조선 계승 의식도 보합 관계를 이루었다는 견해도 있지만,<sup>21)</sup> 기본적으로 고려 초기에 고구려 계승 의식이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고려는 자체적으로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받았다. 고려의 고구려 계승은

14) 『舊五代史』 卷138, 「外國列傳」, 高麗. “及唐之末年 中原多事 其國遂自立君長 前王姓高氏”

15) 『新五代史』 卷74, 「四夷傳」, 高麗. “當唐之末 其王姓高氏 同光元年 遣使廣評侍郎韓申一・副使春部少卿朴巖來 而其國王姓名 史失不紀”

16) 『宋史』 卷487, 「外國傳」, 高麗. “高麗 本曰高句驪 禹別九州 屬冀州之地 周爲箕子之國 漢之玄菟郡也 在遼東 蓋扶餘之別種 以平壞城爲國邑”

17) 『元史』 卷208, 「外夷傳」, 高麗. “後關地益廣 并古新羅・百濟・高句麗三國而爲一 其主姓高氏 自初立國至唐乾封初而國亡 垂拱以來 子孫復封其地 後稍能自立 至五代時 代主其國遷都松岳者 姓王氏 名建 自建至肅凡二十七王 歷四百餘年未始易姓”

18) 『高麗圖經』 卷2, 「世次」, 王氏. “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

19) 朴漢高, 「高麗王室의 基源: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관련하여」, 『史叢』 제21·22집 (1977); 朴漢高,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고구려연구회, 1999); 박용운, 「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 『북방사논총』 제2집(2004);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일지사, 2006); 안병우,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 『한국고대사 연구』 제33집(2004).

20) 河炫綱,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研究』 제8집(1975); 金毅圭, 「高麗前期의 歷史認識」, 『韓國史論 6: 韓國史의 意識과 叙述』(국사편찬위원회, 1979).

21) 金光洙,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제43집(1988).

유형적인 영토 문제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신 및 사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유형적인 영토 계승은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을 중시하고, 이곳을 고려의 수도 중 하나로 삼았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형적인 정신 및 사상 부분은 어떠한 계승 의식을 보였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전조(前朝)의 계승을 자처한다면, 정체성 정립을 위해 계승한 국가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보존하는 것이 상례(常禮)이다. 한(漢)의 계승을 천명하였던 촉한(蜀漢) 소열제(昭烈帝) 유비(劉備)의 경우, 즉위 직후에 한고조(漢高祖) 이하의 선조에게 합동으로 제사를 지냈다.<sup>22)</sup> 고려 또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천명하였다면 고구려 선왕(先王)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고구려 시조를 고려의 국조(國祖)로 모시는 신앙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고려의 왕성(王姓)은 '고(高)'가 아닌 '왕(王)'이었다. 국명과 법통(法統)을 계승하긴 하였으나, 혈연적인 관념은 다소 약할 수 밖에 없었다.<sup>23)</sup> 고려 초기의 기사에서는 고구려 선왕들에 대한 제사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따르면 왕건 기문은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虎景)으로 시작하는 별도의 조상 의식이 있었다. 왕건은 증조부(曾祖父)인 호경을 시조(始祖) 원덕대왕(元德大王)으로, 조부(祖父)를 의조(懿祖) 경강대왕(景康大王)으로, 부친(父親)을 세조(世祖) 위무대왕(威武大王)으로 추존하였다.<sup>24)</sup> 즉 고려 건국기(建國期)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으나 제사의 형태로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고려 왕실에서는 왕건 직계 선조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건국 초부터 고구려 시조 제사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선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고구려 선왕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시조 주몽이다. 주몽에 대한 고려인들의 인식은 고려 시대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

22) 『三國志』卷32, 「蜀書」, 先主傳, 章武 원년. “章武元年夏四月 大赦 改年 以諸葛亮爲丞相 許靖爲司徒 置百官 立宗廟 補祭高皇帝以下”

23) 고려 태조의 선조 호경을 발해인(渤海人)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漢禹, 「高麗王室의 基源: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관련하여」, 『史叢』 제21·22집(1977), 100-101쪽).

24) 『高麗史』卷1, 「世家」, 太祖 2년 3월. “辛巳 追謚三代 以曾祖考爲始祖元德大王 妃爲貞和王后 祖考爲懿祖景康大王 妃爲元昌王后 考爲世祖威武大王 妃爲威肅王后”

『高麗史』에서는 모두 3건의 주몽 기록이 확인된다. 모두 외국에서 고려에 보낸 문서에서 등장한다. 사료의 유사성 및 비교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송사』에 수록된 주몽을 언급한 조서(詔書)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고려사』와 『송사』의 주몽 언급 조서 기록

연번	연도	국가	내용
A-1	933	후당 (後唐)	아아! 그대 권지고려국왕사(權知高麗國王事) 왕건은, 자질이 용대하고 용맹하며, 지혜는 기략에 통달하였고, 변방에서 으뜸으로 빼어나게 태어났고,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드러내었다. 산하(山河)가 내려준 바, 터전이 지극히 풍요하다. <u>주몽이 건국한 상서로움을 계승하여, 저들의 군장이 되고, 기자(箕子)가 번국(蕃國)을 이룬 자취를 밟아서, 은혜와 조회를 펼치고 있다.</u> <sup>25)</sup>
A-2	1057	요(遼)	아아! 그대 광시치리갈절지총봉상공신 개부의동삼사 수대사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 開府儀同三司 守太師 兼 中書令 上柱國 高麗國王) 식읍(食邑) 15,000호(戶) 식실봉(食實封) 1,800호 왕휘(王徵)는 정기를 용수 별자리에 쌓아 계림(鶴林)에서 높이 솟았다. 널리 통달하여 어려서부터 시서(詩書)에 밝았고, 총명하여 날 때부터 예악(禮樂)을 알았다. 큰 책략을 깊이 간직하여 항상 금궤(金櫃)에 간직한 귀중한 서적을 탐구하였으며, 영민한 생각은 굳세고 아름다워 이미 금루지집(錦樓之集)을 저술하였다. <u>주몽의 나라에서 왕위를 이어받아, 현도(玄菟)의 고을에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관용과 위엄으로 강한 군대를 바로잡고 온화함으로 아름다운 풍속을 일으켰다.</u> <sup>26)</sup>
A-3	1065	요	짐(朕)은 하늘의 명을 받들고 나라의 중대한 일을 성실히 행하니, 위로는 여러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융성하게 하였고, 아래로는 제후(諸侯)들과 친선을 유지하며 나라를 세우고, 번유(藩緯)를 널리 수립하였다. <u>그대는 주몽의 작위를 계승하여, 현도의 강토를 넓혔으며, 대대로 사직을 크게 열고, 충성을 바쳐 멀리서 황실을 도왔다.</u> <sup>27)</sup>
A-4	963	북송 (北宋)	개부의동삼사 겸교태사 현도주도독 총대의군사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玄菟州都督 充大義軍使 高麗國王) 소(昭)는 태양의 정기가 뭉쳐 요좌(遼左)에서 영웅으로 추대되어 기자가 남긴 교화(教化)를 익히고 <u>주몽의 옛 풍습을 따랐소. 그리고 구름과 바다를 관측하여 조공(朝貢)으로 제정(帝庭)을 채웠으니, 그 쟁은 정성을 생각하면 실로 매우 가상한 일이오.</u> <sup>28)</sup>

25) 『高麗史』 卷2, 「世家」, 太祖 16년 3월. “咨! 爾權知高麗國王事建! 身資雄勇 智達機鈴  
冠邊城以挺生 負壯圖而閑出 山河有授 基址克豐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  
之跡 宣乃惠和”

표1에서 A-1~3은 『고려사』에 기록된 후당(後唐)과 요(遼)에서 보낸 조서의 내용이며, A-4는 『송사』에 기록된 조서 내용이다. 모두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수사적(修辭的)인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었으며, 서로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각 조서에는 후당·요·북송의 인식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주몽에 대한 언급이 확인된다.

후당과 북송의 조서는 주몽에 대한 내용이 기자(箕子)에 대한 내용과 대구(對句)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요의 조서에서는 주몽이 현도(玄菟)와 대구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기자는 동이(東夷)를 교화시킨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강하고, 현도는 고구려와 연관성이 깊은 군(郡)이었다.

표1의 조서들에서 주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고려에 대한 외교적 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대국의 시조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구절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즉 고려를 상대한 후당·요·북송에서는 고려의 시조를 주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고려도 이러한 시선에 별다른 반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조 주몽 인식이 지속적으로 조서에 등장한 것이다.

『고려사』에서는 더 이상 주몽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도 마찬가지이다. 주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려측 문헌에서 주몽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의아함을 유발시킨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주몽 대신 동명에 대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고려사』의 동명에 대한 기록을 시대순으로 열거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 
- 26) 『高麗史』卷8, 「世家」, 文宗 11년 3월. “咨! 爾匡時致理竭節資忠奉上功臣開府儀同三司  
守太師兼中書令上柱國高麗國王 食邑一萬五千戶·食實封一千八百戶王徽 精儲龍宿 傑  
出雞林 博通幼尙於詩書 聰悟生知於禮樂 宏謀秘奧 常探金樞之編 敏思遼妍 已著錦樓之  
集 粵自襲爵朱蒙之國 宣風玄菟之鄉 以寬猛董雄師 以惠和熙雅俗”
- 27) 『高麗史』卷8, 「世家」, 文宗 19년 4월. “朕誕膺駿命 慎守丕圖 上則荷累聖之貽謀 采昌  
運祚 下則親諸侯而立國 廣樹藩維 其有嗣爵朱蒙 申疆玄菟 延世大開於王社 納忠遐獎於  
帝宸”
- 28) 『宋史』卷487, 「外國傳」, 高麗. “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玄菟州都督·充大義軍  
使·高麗國王昭 日邊鍾粹 遼左推雄 習箕子之餘風 撫朱蒙之舊俗 而能占雲候海 奉贊充  
庭 言念傾轍 實深嘉尚”

표2-『고려사』의 동명 관련 기록

연번	연도	내용
B-1	1011	정해(丁亥)에 평양(平壤)의 목멱(木覓) · 교연(橋淵) · 도지암(道知巖) · 동명왕(東明王) 등의 신(神)에게 훈호(勳號)를 더하였다. <sup>29)</sup>
B-2	1105	(속종 10년) 8월 갑신(甲申)에, 사신을 보내어 동명성제(東明聖帝)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옷과 페백을 비쳤다. <sup>30)</sup>
B-3	1109	을유(乙酉)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허경(許慶)을 보내, 평양 목멱산(木覓山)의 동명왕 신사(神祠)에서 제사를 지내고, 흥복사(興福寺) · 영명사(永明寺) · 장경사(長慶寺) · 금강사(金剛寺) 등의 절에서 문두루도량(文豆婁道場)을 열었다. <sup>31)</sup>
B-4	1116	(예종 11년) 4월 정묘(丁卯)에, 사신을 보내어 상경천(上京川) 상류의 송악(松嶽) · 동신(東神) 등 여러 신묘(神廟), 박연(朴淵) 및 서경(西京) 목멱사(木覓祠) · 동명사(東明祠), 도철(道哲) 암제연(巒梯淵)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sup>32)</sup>
B-5	1278	찬성사(贊成事), 원부(元傅) 등에게 명령하여 성용전(聖容殿)과 동명묘(東明廟), 평양의 목멱묘(木覓廟)에 제사를 지내었다. <sup>33)</sup>
B-6	1278	(충렬왕 4년) 9월 신묘(辛卯)에, 평양에 사신을 보내어, 태조(太祖) 동명왕의 목멱묘에 제향을 올리도록 하였다. <sup>34)</sup>
B-7	1293	왕이 서경에 도착하였다. 성용전을 참배하고, 사람을 나누어 파견하여 평양군사(平壤郡祠)와 동명왕묘(東明王廟), 목멱묘에 제사지내게 하였다. <sup>35)</sup>
B-8		우리 태조께서는 즉위(卽位)한 뒤, 김부(金傅)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진хи(甄萱)이 사로잡히지 않았는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직접 북쪽 변방을 순시하였다. 그 뜻도 또한 동명(東明)의 옛 땅을 우리 집안의 청전(靑齋)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석권(席卷)하여 가지려 한 것이니, 어찌 닭을 잡고 오리를 둑는 데 그칠 것이겠는가? <sup>36)</sup>
B-9		동명왕묘(府)의 동남쪽, 중화현(中和縣) 경계의 용산(龍山)에 있으며, 민간에서는 진주묘(珍珠墓)라고 부른다. 또 인리坊(仁里坊)에 사우(祠宇)가 있는데, 고려 때에 어입(御押)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했으며, 초하루와 보름에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제시를 지내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일이 있으면 자주 소원을 빈다. 세상에 전하기를 동명성제의 사당이라 한다. 을밀대(乙密臺)대(臺)는 금수산(錦繡山) 정상에 있으며, 대의 아래층의 절벽 가까이에, 영명사(永明寺)가 있는데, 곧 동명왕의 구제궁(九梯宮)이다. 안에 기린굴(麒麟窟)이 있고 굴의 남쪽이 백은단(白銀灘)이다. 조수(潮水)에 따라 출몰하는 바위가 있는데, 조천석(朝天石)이라 부른다. <sup>37)</sup>

29) 『高麗史』 卷4, 「世家」, 顯宗 2년 5월. “丁亥 加平壤木覓 · 橋淵 · 道知巖 · 東明王等神勳號”

30) 『高麗史』 卷63, 「禮志」 5, 吉禮小祀 雜祀. “八月甲申 遣使祭東明聖帝祠 獻衣幣”

31) 『高麗史』 卷13, 「世家」, 睿宗 4년 4월. “乙酉 遣同知樞密院事許慶 祭平壤木覓東明神祠 又設文豆婁道場於興福 · 永明 · 長慶 · 金剛等寺”

32) 『高麗史』 卷63, 「禮志」 5, 吉禮小祀 雜祀. “十一年四月丁卯 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 · 東神諸神廟 朴淵及西京木覓 · 東明祠 · 道哲巒梯淵”

33) 『高麗史』 卷28, 「世家」, 忠烈王 4년 9월. “命贊成事元傅等 祀聖容殿 · 東明 · 平壤木覓廟”

34) 『高麗史』 卷63, 「禮志」 5, 吉禮小祀 雜祀. “九月辛卯 遣使于平壤 享太祖東明木覓廟”

표2의 B-1·2·3·4·5·6·7은 모두 제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 중에서 B-1과 B-2는 모두 『고려사절요』에도 동일한 기록이 확인되며, B-5와 B-6은 서로 동일한 사건이다. B-8은 태조(太祖)에 대한 이제현(李齊賢)의 친술로, 충선왕(忠宣王)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즉 고려 초의 인식이 아닌 고려 말의 인식에 해당하며, 『고려사절요』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었다. B-9는 「지리지(地理志)」 평양의 고적(古跡) 중에서 동명과 관련한 내용이다.

표2에서 확인되는 동명은 부여의 시조를 일컫는 게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일컫는다. 그 근거로 모든 기록이 평양과 연계하여 등장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여는 평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점이 없다. 주몽은 평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는 평양 이었으므로 간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다.

동명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011년의 제사 기록이다. 적어도 1011년에는 평양에 동명을 모시는 사당이 건립되었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격을 높여 주었던 것이다. 이후 평양의 동명왕 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사가 행해졌고, 사신이 가서 제사를 지냈다. 지리지의 평양 기록에서는 동명과 관련된 사적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데, 동명왕묘(東明王墓)와 인리방(仁里坊)의 사우(祠宇), 을밀대(乙密臺)가 이에 해당한다. 어압(御押)의 존재와 11-13세기에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 기록을 통해, 동명왕에 대한 제사는 왕실(王室)에서 직접 신경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8)</sup>

표1은 외국에서 고려에 보낸 조서의 기록이며, 표2는 고려 자체의 기록이다. 즉 외국에서는 고구려 시조를 주몽으로 인식한 반면, 고려에서는 주몽과 동명을 동일하게 여기고, 주로 동명으로 표기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려에서는 주몽을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 하였으며, 이는 『삼국

35) 『高麗史』卷30, 「世家」, 忠烈王 19년 10월. “王至西京 謹聖容殿 分遣人 祭平壤君祠 · 東明王及木冤廟”

36) 『高麗史』卷2, 「世家」, 太祖 26년 李齊賢贊. “我太祖卽位之後 金博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 亦以東明舊壤 爲吾家青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鷄搏鴨而已哉?”

37) 『高麗史』卷58, 「地理志」3, 西京留守官 平壤府. “東明王墓[在府東南 中和境龍山 俗號珍珠墓 又仁里坊有祠宇 高麗以時降御押 行祭 朔望亦令其官 行祭 邑人至今有事輒禱世傳東明聖帝祠] 乙密臺[臺在錦繡山頂 臺下層崖之旁 有永明寺 卽東明王九梯宮 內有麒麟窟 窟南白銀灘 有巖出沒潮水 名曰朝天石]”

38) 고려의 제사 중 동명성제사(東明聖帝祠)의 중요성은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채미하,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4집(2009).

사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 그리고 『구삼국사』 일문을 제시한 「동명 왕편」에서 확인된다.

표1의 조서 중에서 후당에서 보낸 조서는 태조대(太祖代)에, 북송에서 보낸 조서는 광종대(光宗代)에 해당한다. 즉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후당과 북송에서는 고려의 시조를 주몽으로 인식하여 조서를 보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 내에서도 동일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고려 측에서 후당과 북송에서 보낸 조서의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후당과 북송 측에서 고려에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고려 초기에는 시조로서의 주몽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요에서 1057년과 1065년에 보낸 조서에서도 고구려의 시조를 주몽으로 표기하였다. 반면 고려측 기록에서는 1011년의 기록부터 고구려 시조로서 동명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대략 11세기 경부터 '주몽~동명'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체화 시점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III.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시점

고려에서는 주몽을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동명성제)으로 표기하여 동명과 일치시켰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는 명칭 통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구려와 부여의 시조관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백제의 시조관 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경향은 언제 등장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의견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구려 시대부터 주몽의 시호를 동명성왕으로 올렸고, 고려에도 그대로 전래되었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고구려 시대에는 주몽과 동명이 별개로 구분되었으며, 고려 시대 『구삼국사』 편찬 시점에 동명성왕으로의 일체화가 이행되었다는 견해이다.

본고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구려 시대에 주몽의 시호를 동명성왕으로 올렸다는 견해는 여러 문제가 있다. 고구려 멸망 이후의 금석문에서도 주몽과 동명을 구분하는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천남 산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C. 군(君)의 휘(諱)는 남산(男產)이니 요동(遼東) 조선인(朝鮮人)이다. 옛날에 동명이 기(氣)를 느끼고, 사천(瀘川)을 넘어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渢水)에 임해 수도를 열어, 위엄이 해 뜨는 곳[扶索]의 나루에 미치고, 세력이 동쪽 지역[蟠桃]의 풍속을 제압하였으니, 비록 성진(星辰)과 바다와 산아이 변방 지역[要荒]에 걸려 있지 않았어도, 예절[俎豆]과 시서(詩書)는 성교(聲教)에 통하여, 가(家)를 잊고 씨(氏)를 받았으니, 군은 그 후예이다 ..... 넓고 신령스러운 바다여, 백천(百川)이 모이는 곳. 동명의 후예가, 진실로 조선(朝鮮)을 세웠도다. 호(胡)를 위협하고, 맥(貊)을 제압하였으며, 서주(徐州)와 통하고 연(燕)을 막았도다.<sup>39)</sup>

천남산(泉男產)은 장안(長安) 2년(702) 4월 23일에 매장(埋葬)되었으므로, 「천남산묘지명」은 대략 702년 이전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묘지명(墓誌銘)의 주인공이 고구려인이기 때문에, 동명과 주몽에 대한 인식의 주체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동명과 주몽은 명확히 구분되어 대구를 이루고 있다.

동명에 대해 '감기(感氣)'라고 한 것은 그의 출생 설화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형(論衡)』에서는 북이(北夷) 탁리국왕(橐離國王)의 시비(侍婢)가 임신하였을 때 계란과도 같은 기운이 자기에게 하늘에서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하였다.<sup>40)</sup> 주몽에 대해 '잉일(孕日)'이라고 한 것 역시 출생 설화와 연관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위서(魏書)』에서는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녀(河伯女)가 태양의 비축을 받아 임태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41)</sup> 「천남산묘지명」의 찬자(撰者)는 동명설화와 주몽설화의 차이

39) 「泉男產墓誌銘」. 「君諱男產 遼東朝鮮人也 昔者東明感氣 踰瀘川而開國 朱蒙孕日 臨渢水而開都 威漸扶索之津 力制蟠桃之俗 雖星辰海嶽 莫繫於要荒 而俎豆詩書 有通於聲教 承家命氏 君其後也 ..... 於廓靈海 百川注焉 東明之裔 寔爲朝鮮 威胡制貊 通徐拒燕」. 본 판독문과 해석문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고구려 · 백제 · 낙랑 편』(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1997), 529-533쪽'을 참조하였다.

40) 『論衡』 卷9, 「吉驗」.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 王欲殺之 婢對曰 有氣大如雞子 從天而下 我故有娠 後產子 捐於豬溷中 豬以口氣噓之 不死 復徙置馬欄中 欲使馬藉殺之 馬復以口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 令其母收取 奴畜之 名東明 令牧牛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掩汎水 以弓擊水 魚鱉浮爲橋 東明得渡 魚鱉解散 追兵不得渡 因都王夫餘 故北夷有夫餘國焉 東明之母初妊時 見氣從天下 及生棄之 豬馬以氣吁之而生之 長大 王欲殺之 以弓擊水 魚鱉爲橋 天命不當死 故有豬馬之救 命當都王夫餘 故有魚鱉爲橋之助也」

41) 『魏書』 卷100, 「高句麗傳」. 「高句麗者 出於夫餘 自言先祖朱蒙 朱蒙母河伯女 爲夫餘王 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 夫餘王棄之與犬 犬不食 棄之與豕 豺又不食 棄之於路 牛馬避之 後棄之野 衆鳥以毛茹之 夫餘王割剖之 不能破 遂還其母 其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男破殼而出 及其長也 字之曰朱蒙 其俗言朱蒙者 善射也」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묘지명에 적시하였다. 마지막의 사(詞)에서는 동명의 후예가 조선(朝鮮)을 세웠다고 하여, 동명과 주몽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주몽이 폐수(渢水)에 임해 수도를 열었다는 내용 또한 주목을 요한다. 고구려 말기의 폐수가 대동강(大同江)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북위(北魏) 아래로 폐수는 평양을 끼고 흐르는 강으로 인식되었다.<sup>42)</sup> 주몽이 평양에 임하여 수도를 열었다는 기록을 통해 주몽과 평양의 연계 의식이 고구려 말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표1에서 동명, 즉 주몽에 대한 의식이 모두 평양과 연계되어 나타난다는 점도 이와 연계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천남산묘지명』으로 볼 때 고구려 말기에 주몽과 동명이 일체화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신찬성씨록』에서도 주몽은 고구려의 국주(國主)로 확인된다.<sup>43)</sup> 즉 주몽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시조로 인식되었고, 동명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지되었다.

『고려사』의 1011년 기록에서는 동명왕의 존재가 주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동명왕편」에 수록된 『구삼국사』 일문에서도 주몽을 동명 왕으로 일컬었다. 즉 1011년 혹은 『구삼국사』 성립 시점 이전에 주몽과 동명은 동명성왕이라는 존재로 일체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시점을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옛 땅의 거주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신라(新羅)의 삼국통일(三國統一)과 나당전쟁(羅唐戰爭) 이후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일대는 공백지로 남게 되었다. 고구려인들은 당(唐)으로 압송되어 유민(遺民)의 삶을 영위하기도 하였고, 발해(渤海) 건국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혹은 당과 발해, 신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 살기도 하였다. 이들은 과거 시조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지면서, 자연스레 주몽과 동명에 대한 의식도 약화되었고, 후대의 혼동으로 인하여 양자(兩者)가 일체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고려 초기의 사람들이 주몽과 동명을 혼동하였을 수도 있다.

42) 『水經注』卷14, 濁水. “若渢水東流 無渡渢之理 其地今高句麗之國治 余訪番使 言城在 濁水之陽”

43) 『新撰姓氏錄』, 氏族一覽 3, 第三帙, 諸蕃·未定雜姓. “出自高麗國主鄒牟[一名朱蒙]也”; “出自高麗國主鄒牟王廿世孫汝安祁王也”

역시 앞의 논리와 유사하게, 오랫동안 신라 치하(治下)에 살던 사람들이 고구려로 회귀하면서, 이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지 못하였고 불완전한 시조관(始祖觀)이 대대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필자는 고구려 멸망 이후나 고려 초기에 사람들의 혼동으로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고려인들은 높은 한문(漢文) 해석 능력을 보유하였고, 역사서(歷史書)도 풍부하게 소장하였다. 고려는 후삼국 시대부터 대당유학생 출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고려 초의 문신들도 지식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많았다. 고려 선종(宣宗) 때 북송에서는 고려에 선본(善本)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목록을 작성하여 각종 서적들을 구해오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사(傳寫)하여 오라고까지 하였다.<sup>44)</sup> 아울러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는 『책부원귀(冊府元龜)』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참고하여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1192년에는 정국검(鄭國儉)과 최선(崔詵)이 서연(書筵)의 모든 유학자들을 모아 『증속자치통감(增續資治通鑑)』을 교정하고 이를 각 주현(州縣)에 보내기까지 하였다.<sup>45)</sup> 이처럼 고려는 북송의 학술적 성과들을 실시간으로 도입하는 등 수준 높은 학술적 역량을 갖추었다.

근대의 정치는 역대 왕조의 역사서를 주로 참고하여 그 전거(典據)를 모범으로 정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대(當代) 지식인들은 중국 정사를 지속적으로 탐독하였다. 때문에 중국 정사를 발간하고, 발간자에게 벼슬을 수여하기까지 하였다.<sup>46)</sup> 중국 정사에서 고구려전(高句麗傳)은 『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송서(宋書)』·『양서(梁書)』·『남제서(南齊書)』·『위서』·『주서(周書)』·『남사(南史)』·『북사(北史)』·『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에, 부여전(夫餘傳)은 『후한서』·『삼국지』·『진서(晉書)』에 수록되었다. 고려의 지식인들도 중국 정사를 보았다면 고구려전을 당연히 열람하여 고구려

44) 『高麗史』 卷10, 「世家」, 宣宗 8년 6월. “丙午 李資義等還自宋 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 書所求書目錄 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45) 『高麗史』 卷20, 「世家」, 明宗 22년 4월. “夏四月 王子 命吏部尚書鄭國儉 判秘書省事崔詵 集書筵諸儒於寶文閣 稽校增續資治通鑑 分送州縣 雕印以進 分賜侍從儒臣”

46) 『高麗史』 卷6, 「世家」, 靖宗 8년 2월. “己亥 東京副留守崔顥 判官羅旨說 司錄尹廉 掌書記鄭公幹等奉制 新刊兩漢書與唐書 以進 並賜爵”

사(高句麗史)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정사에서는 동명설화와 주몽설화를 염격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통전(通典)』에서는 부여절(夫餘節)과 고구려절(高句麗節)에 동명설화와 주몽설화를 별도로 기술하였다. 중국의 사서를 탐독한 고려의 지식인들이 높은 한문 해석 능력과 학술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설화와 주몽설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중국에서 고려에 보낸 조서에 주몽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앞서 표1에서 살펴본 후당·북송·요의 조서에서는 모두 고려의 시조로서 주몽의 존재를 명확히 표기하였다. 외교 문서가 상대국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점을 상기하였을 때, 후당·북송·요는 고려의 시조를 주몽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고려의 인식과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성을 기록한 중국 사서로 『구오대사』·『신오대사』·『송사』·『원사』·『고려도경』이 있다. 이 중에서 『구오대사』는 974년 윤10월에, 『신오대사』는 1053년에 완성되었다.<sup>47)</sup> 즉 고려 성립 이래로 북송에서는 줄곧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주몽 인식은 금대(金代)에 이르러 일부가 변동된 것으로 추측된다. 금(金)의 장호(張浩)는 요양(遼陽) 밭해인(渤海人)으로, 본래는 고씨였으며 동명왕의 후예로 기록되었다.<sup>48)</sup> 고씨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장호는 고구려 유민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조상으로 언급된 동명왕은 정황상 주몽을 지칭한고 볼 수 있다. 즉 금대에 이르러서는 고려의 동명성왕 일체화가 완료되었고, 고려의 정립된 인식이 여진과도 같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셋째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시조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시조관은 국가 정체성과도 결부되는 문제로, 단순히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왕실 구성원들의 인식이 시조관에 반영되며, 이 원칙은 후대에도 준용하게 만든다. 시조는 국가 제사와도 연관되므로, 피지배층의 인식이 반영되기 보다는, 지배층의 인식이 주로 나타난다.

47) 신승하, 『중국사학사』(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165-168쪽.

48) 『金史』卷83, 「列傳」 21, 張浩. “張浩字浩然 遼陽渤海人 本姓高 東明王之後 曾祖霸 仕遼而爲張氏 天輔中 遼東平 浩以策干太祖 太祖以浩爲承應御前文字 天會八年 賜進士及第 授祕書郎”

고려 왕실에서는 주몽과 동명의 존재를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시조를 규정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성이 높다. 중국의 사서를 보면 동명과 주몽이 구분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둘을 혼동하여 시조관을 정립하였다고 보긴 힘들다. 즉 고려에서 주몽과 동명을 일체화시켰다면, 그에 합당하는 이유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V. 고려의 동명성왕 관념 성립과 이유

앞서 고찰한대로 주몽과 동명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은 1011년 혹은 『구삼국사』 성립 시점 이전에 ‘동명성왕’이라는 존재로 일체화되는 변화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추측된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원인을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기 힘들지만, 필자는 크게 2가지 가능성성이 강하게 작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거란에 대응하는 고구려 계승의식 경쟁의 산물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고려-후백제 통합 의식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는 사안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얹혀있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가 고구려 계승의식 경쟁의 산물이라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자. 993년에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소손녕은 거란이 이미 고구려 옛 땅을 영유하였는데, 고려가 강계를 침탈하므로 와서 정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거란의 주장을 고려 공격을 위한 허황된 명분으로 보고, 그들의 고구려 계승 의식 주장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란은 요동지역을 점유하고 백해를 멸망시켜 만주지역을 확보하였다.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따르면 백해는 무왕(武王) 때에 고구려 영역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거란은 백해의 영역을 장악하였으므로 고구려 영역을 점령한 셈이었다. 때문에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영유하였다는 소손녕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거란의 고구려 계승 주장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만 확인되며,

49)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 神龜 5년 春 正月 17日, “武藝忝當列國 濫據諸蕃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요사(遼史)』에서는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거란이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거란이 영유한 동경도는 본래 고구려 옛 땅이었으므로, 거란은 고구려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다.

거란은 발해 유민들을 요동(遼東)으로 대거 사민(徙民)시켰다.<sup>50)</sup> 그 원인으로 군사적·경제적 요인 및 통치의 원활화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사민된 발해 유민들은 지속적으로 거란에 저항하며 맹렬한 항쟁 의식을 함유하였다. 그 결과 대연림(大延琳)의 흥요국(興遼國) 건국(1029)<sup>51)</sup>이나 고영창(高永昌)의 대발해국(大渤海國) 건국(1116)<sup>52)</sup>과 같은 조국회복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거란에서는 발해인들의 대거 사민 이후, 발해 유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거란이 고구려의 영토를 계승하였다는 인식을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손녕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후예 발해인들을 백성으로 둔 거란에게 있어, 고려는 걸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의 발로로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이러한 고려와의 동질성 때문인지, 거란의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발해인들이 고려로 귀화하였다.<sup>53)</sup> 925년에 신덕(申德)이 500명을 이끌고 고려에 내투(來投)하고,<sup>54)</sup> 대화균(大和鈞)·대균로(大均老)·대원균(大元均)·대복모(大福暮)·대심리(大審理) 등이 백성 100호를 거느리고 귀화하였다.<sup>55)</sup>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해인들이 고려에 귀화하였으며, 938년에는 박승(朴昇)이

50) 거란의 발해 유민 사민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로 참고된다. 李龍範, 「遼代 東京道의 渤海遺民」, 『史叢』 제17·18집(1973); 임상선, 「渤海人의 契丹 内地로의 강제遷徙와 居住地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제47집(2013).

51) 『遼史』 卷17, 「聖宗紀」, 太平 9년. “八月己丑 東京舍利軍詳穩大延琳囚留守·駙馬都尉蕭孝先及南陽公主 殺戶部使韓紹勳·副使王嘉·四捷軍都指揮使蕭頗得 延琳遂僭位 號其國爲興遼 年爲天慶”

52) 『遼史』 卷28, 「天祚帝紀」, 天慶 6년. “東京故渤海地 太祖力戰二十餘年乃得之 而蕭保先嚴酷 渤海苦之 故有是變 其裨將渤海高永昌 僭號 稱隆基元年 遣蕭乙薛·高興順招之 不從”

53) 발해 유민의 고려 사민 및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송영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바라본渤海 유민의 高麗 이후 양상과 특징 검토」, 『동아시아고대학』 제46집(2017).

54)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년 9월. “秋九月 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投”

55) 『高麗史』 卷1, 「世家」 1, 太祖 8년 9월.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謨·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3,000여 호를 거느리고 내투하기까지에 이르렀다.<sup>56)</sup>

더구나 고려는 발해 유민들에게 포용정책을 펼친 것과는 달리, 거란에게는 건국 아래로 줄곧 대립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고려 태조 때의 만부교(萬夫橋) 사건이 대표적이다.<sup>57)</sup> 또한 훈요십조(訓要十條) 중 제4조에서도 거란을 금수지국(禽獸之國)이라고 일컬으며 그들의 의관제도(衣冠制度)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다.<sup>58)</sup>

거란의 입장에서 고려라는 존재는 발해 유민들과 연계하여 동경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수많은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이동하여 변경지역에 정착하였고, 동경도의 발해인들은 거란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더구나 고려는 국초(國初) 아래로 꾸준히 북진정책(北進政策)을 추진하였다. 태조가 서경을 건설한데에 이어, 안북부(安北府)를 건설하자 고려의 변경은 대동강 유역에서 청천강 유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정종(定宗) · 광종대에도 고려는 진성(鎮城) 구축을 지속하였고, 성종대(成宗代)에는 압록강 관방 설치를 시도하는 데에 이른다.<sup>59)</sup>

고려의 지속적인 북방정책은 고구려 영토 회복이라는 명분과 맞물려 있었다. 고려는 내정이 안정될수록 영역을 확장해 나갔으며, 이는 거란과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었다.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것은 고려와 북송의 연계 및 고려와 여진의 연계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목적은 물론, 내부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소손녕이 고구려 옛 땅 회복을 운운한 목적은 단순히 명분 확보 때문이 아닌, 대내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거란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은 『요사』 지리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요사』 지리지의 동경요양부(東京遼陽府) 항목을 보면, 본래 조선의 땅이라고 기재하였다.<sup>60)</sup> 이후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냈었는데, 당시의 평양을 요동경(遼東京)이라고 하였다.<sup>61)</sup> 또한 발해가

56) 『高麗史』 卷2, 「世家」 2, 太祖 21년. “是歲 渤海人朴昇 以三千餘戶來投”

57) 『高麗史』 卷2, 「世家」 2, 太祖 25년. “二十五年 冬十月 契丹遣使 來遣橐駝五十匹 王以契丹嘗與渤海 連和 忽生疑貳 背盟殄滅 此甚無道 不足遠結爲隣 遂絕交聘 流其使三十人于海島 繫橐駝萬夫橋下 皆餓死”

58) 『高麗史』 卷2, 「世家」 2, 太祖 26년. “其四曰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59) 최덕환,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 제85집(2012), 297쪽.

60)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遼陽府. “東京遼陽府 本朝鮮之地 周武王釋箕子囚 去之朝鮮 因以封之”

건국한 이후, 당 중종(中宗)이 그 도읍을 홀한주(忽汗州)로 일컬었는데, 이 또한 옛 평양성(平壤城)이며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라고 하였다.<sup>62)</sup> 즉 『요사』 지리지에서는 요양이 고구려의 평양이고, 발해의 중경현덕부라고 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수도가 모두 이곳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역사적 사실로 보기 힘든 측면이 많다. 『요사』 지리지에 기록된 수많은 지역들이 실제 지리적 사실과는 차이가 매우 크고, 다른 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치 고증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요사』 지리지의 주장은 고려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려에서는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 평양부(平壤府)가 삼조선(三朝鮮)의 옛 도읍 이자, 고구려가 국내성(國內城)에서 천도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이라고 하였다.<sup>63)</sup> 고려는 국초부터 왕이 직접 서경으로 행차하면서 관심을 기울였다. 훈요십조 중에서도 제5조에서도 서경에 100일간 체류하라며 평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서희 또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평양에 도읍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소손녕의 고구려 계승 주장과 『요사』 지리지에서 동경요양부가 평양이라고 하는 기록은, 거란에서 발해인들을 의식하여 만들어낸 주장으로 여겨진다. 거란의 고려 침입 명분 또한 거란의 고구려 계승 인식과도 연관이 된다. 고려로서는 이러한 거란의 주장에 맞서 고구려 계승 인식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993년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소손녕은 고려인들에게 자기들이 고구려의 영토를 계승하였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sup>65)</sup> 이러한 소손녕의 주장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고려 조정으로서는 기존의 왕실과 조정 내에 국한되었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외부적으

61)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遼陽府. “元魏太武遣使至其所居平壤城 遼東京本此”

62)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遼陽府. “忽汗州即故平壤城也 號中京顯德府”

63) 『高麗史』 卷58, 「地理志」 3, 北界, 西京留守官 平壤府. “本三朝鮮舊都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是爲前朝鮮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是爲後朝鮮 逮四十一代孫準時 有燕人衛滿 亡命聚黨千餘人 來奪準地 都于王險城[險一作儉 卽平壤] 是爲衛滿朝鮮 其孫右渠 不肯奉詔 漢武帝元封二年 遣將討之 定爲四郡 以王險爲樂浪郡 高句麗長壽王十五年 自國內城 徙都之 寶藏王二十七年 新羅文武王 與唐夾攻滅之 地遂入於新羅”

64) 『高麗史』 卷94, 「列傳」 7, 徐熙. “我國即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65) 『高麗史』 卷94, 「列傳」 7, 徐熙. “遜寧聲言 大朝既已奄有高勾麗舊地 今爾國侵奪疆界 是以來討”

로 표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011년에 평양의 동명왕 등의 신에게 훈호(勳號)를 더한 기사가 주목된다.<sup>66)</sup> 이는 고려의 동명왕 제사 기록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이다. 문맥으로 볼 때 기준에도 동명왕을 비롯한 여러 신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기록은 민간차원에 머물러 있던 동명왕 등의 신앙이, 훈호를 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신앙으로 승격되었다는 내용이다.<sup>67)</sup>

1011년은 1010년에 발생하였던 거란의 2차 침입 직후에 해당한다. 1010년에 발발한 거란의 2차 침입은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당시 거란의 성종(聖宗)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親征)하였으며, 고려의 현종(顯宗)은 개경(開京)을 버리고 나주(羅州)로 봉진(蒙塵)하게 되었다.<sup>68)</sup> 당시 개경성은 거란군에게 함락되어 태묘(太廟)와 궁궐 및 민가가 모조리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sup>69)</sup> 현종의 친조(親朝) 약속을 받아낸 거란의 성종은 회군을 결정하였고,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쟁 이후 양국(兩國)의 긴장감은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거란은 전연지맹(澶淵之盟)을 통해 북송보다 우위에 섰기 때문에, 고려는 자체 역량으로 거란에 대비해야 하였다. 고려는 군비(軍備)를 확충하며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였으며, 그 일례로 1011년에 30만 대군으로 구성된 광군도감(光軍都監)을 정종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광군사(光軍司)로 복구한 사례를 들 수 있다.<sup>70)</sup>

거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비 확충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전쟁 준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이를 하나로 단결시킬 구심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66) 『高麗史』卷4, 「世家」, 顯宗 2년 5월. “丁亥 加平壤木覓·橋淵·道知巖·東明王等神勳號”

67) 평양의 사당들에 훈호를 더해준 것은 거란과의 전쟁 당시 서경신사(西京神祠)의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高麗史』卷4, 「世家」, 顯宗 원년 11월. “辛酉 契丹主攻西京不拔 解圍而東 癸亥 西京神祠 旋風忽起 契丹軍馬皆債”

68) 『高麗史』卷4, 「世家」, 顯宗 2년 1월. “丁亥 踏蘆嶺 入羅州”

69) 『高麗史』卷4, 「世家」, 顯宗 2년 정월. “二年 春正月 乙亥朔 契丹主入京城 焚燒太廟·宮闈·民屋皆盡 是日 王次廣州”

70) 『高麗史』卷77, 「百官志」2, 諸司都監各, 色光軍司. “光軍司[定宗二年 置之 後改光軍都監 顯宗二年 復改光軍司]”; 『高麗史』卷81, 「兵志」1, 兵制, 五軍. “定宗二年 以契丹將侵 選軍三十萬 號光軍 置光軍司”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존재가 부상하게 되었다. 한반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의 열망 때문에 궁예와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정한 것이었으며, 그 중심지는 단연 서경 즉 평양이었다. 1011년에 평양의 동명왕 등의 신에게 훈호를 더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려 북부지역 외에는 주몽이 국가적인 시조로 인식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한반도 남부의 동쪽과 서쪽은 각각 신라와 백제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신라지역은 고려에 귀부하였고 구신라계(舊新羅系) 귀족들이 고려 중앙 정계의 주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큰 우려의 대상은 아니었다. 더구나 현종은 신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항복하면서 백부(伯父) 잡간(迺干) 김억렴(金億廉)의 딸을 태조와 결혼하게 하였다. 그 딸이 신성왕태후(神成王太后) 김씨(金氏)이며 현종의 어머니에 해당한다.<sup>71)</sup>

그렇지만 한반도 서남부의 백제지역은 신라지역과는 달랐다. 고려 조정에서는 훈요십조 중 제8조로 대표되는 후백제인(後百濟人) 차별 의식이 잔존하였으며, 이는 고려 전체 국론 통합의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현종은 봉진 당시 삼례역(參禮驛)에 이르렀을 때,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全州)로 들어서는 것을 주저하여 장곡역(長谷驛)에서 유숙할 정도였다.<sup>72)</sup> 고려 조정은 현종의 나주 봉진을 계기로, 언제든지 성종대(成宗代)의 10도(道) 중 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해양도(海陽道), 즉 현종대(顯宗代)의 5도(道) 양계(兩界) 중 양광도(楊廣道) 남부와 전라도(全羅道) 일대의 도움을 받을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국초에 정립한 후백제인 차별 의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으며, 백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통합적인 시조관이 요구되었다.

『위서』에 따르면 백제는 일찍이 고구려와 더불어 그 근원이 부여라고 주장하였다.<sup>73)</sup> 『북사』에서는 백제전(百濟傳)의 서두에 부여의 동명설화

71) 『三國史記』卷12, 敬順王 9년. “初 新羅之降也 太祖甚喜 既待之以厚禮 使告曰 今王以國與寡人 其爲賜大矣 願結昏於宗室 以永甥舅之好 答曰 我伯父億廉匝干 知大耶郡事 其女子德容雙美 非是無以備內政 太祖遂取之生子 是顯宗之考 追封爲安宗 至景宗獻和大王 聘正承公主納爲王妃 仍封正承公爲尚父令 公至大宋興國四年戊寅 薦 謚曰敬順[一云孝哀]”

72) 『高麗史』卷94, 「列傳」, 諸臣, 智蔡文. “至參禮驛 全州節度使趙容謙 野服迎駕 朴暹奏 曰 全州卽古百濟 聖祖亦惡之 請上勿幸 王然之 宿長谷驛”

를 기재하였으며, 그 후손인 구태(仇台)가 대방(帶方)의 옛 땅에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하였다.<sup>74)</sup> 때문에 「백제본기(百濟本紀)」에서도 동명묘(東明廟) 배알 기사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sup>75)</sup> 고구려도 『삼국지』 단계부터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기록되었으며,<sup>76)</sup> 『양서』에서는 고구려의 선조가 동명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sup>77)</sup>

즉 고구려와 백제는 동명이라는 선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동명설화를 차용하여 주몽설화를 형성하였으며, 백제에서는 동명설화를 바탕으로 구태설화를 첨부하였다. 고려에서는 중국 정사의 고구려전과 백제전을 고찰하여 양국의 시조관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동명이 동일인이라며 일치시킨 작업을 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된다면 주몽과 동격인 동명왕의 후손에 백제를 세운 구태가 있으므로, 고구려와 백제는 선조와 후손의 국가가 되면서 고구려가 상위(上位)에 자리하게 된다.<sup>78)</sup>

이처럼 고려는 1011년을 전후한 시점에 동명성왕 시조관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017년에는 삼국(三國) 선왕들의 무덤을 대대적으

73) 『魏書』卷100, 「百濟國傳」, “百濟國 其先出自夫餘 其國北去高句麗千餘里 處小海之南 …… 又云 臣與高句麗源出夫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74) 『北史』卷94, 「百濟傳」, “百濟之國 蓋馬韓之屬也 出自索離國 其王出行 其侍兒於後姪 娼 王還 欲殺之 侍兒曰 前見天上有氣如大鷄子來降 感 故有娠 王捨之 後生男 王置之豕牢 猪以口氣噓之 不死 後徙於馬闕 亦如之 王以爲神 命養之 名曰東明 及長 善射 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乃奔走 南至淹滯水 以弓擊水 魚鼈皆爲橋 東明乘之得度 至夫餘而王焉 東明之後有仇台 篤於仁信 始立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遂爲東夷強國 初以百家濟 因號百濟”

75) 『三國史記』卷23, 多婁王 2년. “二年 春正月 謁始祖東明廟”; 『三國史記』卷24, 仇首王 14년. “夏四月 大旱 王祈東明廟 乃雨”; 貴稽王 2년.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汾西王 2년.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比流王 9년. “夏四月 謁東明廟 拜解仇爲兵官佐平”; 『三國史記』卷25, 阿莘王 2년.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又祭天地於南壇”; 膽支王 2년. “二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祭天地於南壇 大赦”

76)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77) 『梁書』卷54, 「諸夷傳」, 高句麗. “高句驪者 其先出自東明 東明本北夷橐離王之子 離王出行 其侍兒於後任娠 畦王還 欲殺之 侍兒曰 前見天上有氣如大鷄子 來降我 因以有娠 畦王囚之 後遂生男 畦王置之豕牢 猪以口氣噓之 不死 畦王以爲神 乃聽收養 長而善射 畦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乃奔走 南至淹滯水 以弓擊水 魚鼈皆浮爲橋 東明乘之得渡 至夫餘而王焉 其後支別爲句驪種也”

78) 이후 『삼국사기』 단계에 들어서 또다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려 초기에 재정립된 동명의 후손 구태라는 시조관에서, 구태를 우태(優台)로 변환하고, 온조(溫祚)와 비류(沸流)를 동명왕의 아들인 것으로 변형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는 선조와 후손의 관계에서, 부자(父子) 관계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로 보수하였다.<sup>79)</sup> 이를 통해 후백제인들의 불만을 누그리뜨리고, 고구려와 신라계 지방 세력들에게도 전(前) 왕실에 대한 존중 의식을 드러내어 내부 결속을 도모하였다.

동명성왕 시조관 정립은 이후 『구삼국사』 편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삼국사』 편찬 시기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종 때에 편찬되었다고 보는 설이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삼국사기』는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는데, 직관지(職官志)의 태봉(泰封) 관제(官制)에서의 '금(今)'은 목종 원년(998)~현종 2년(1011)을 가리킨다고 한다. 또한 1013년에 감수국사(監修國史)와 편찬관이 임명된 기록을 바탕으로, 이때 7대 실록 뿐만 아니라 『구삼국사』도 편찬되었다고 보고 있다.<sup>80)</sup> 역사서의 편찬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립과도 연관이 깊다. 앞서 설명한대로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대통합적인 시조관이 필요하였다. 이를 동명성왕 시조관으로 정립하였다면 역사서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 즉 『구삼국사』의 편찬 경위 또한 이와 맞물려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고려의 동명성왕 관념 성립은 본래 거란에 대항하여 내부를 결속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에서 소손녕이 거란이 고구려 영토를 계승하였다는 주장은, 한반도 북부 주민들의 민심을 동요시킬 여지가 있었다. 거란의 2차 침입에서 고려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현종은 직접 나주로 봉진하여 지방 세력의 결속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그 결과 고려는 고구려 중심의 시조관을 정립하여 민심을 규합하려고 시도하였고, 후백제인들에게 고구려와 백제는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정립시켰다. 이러한 고려의 노력은 『구삼국사』에 반영되어 국가 이데올로기 확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각 지명들의 위치를 한반도 서북부로 끌어내려, 고구려 구강(舊疆)에 대한 지배권의 근거를 확실히 하는 작업도 이행되었다.<sup>81)</sup>

79) 『高麗史』 卷4, 「世家」, 顯宗 8년 12월. “是月 教 高勾麗·新羅·百濟王陵廟 並令所在州縣修治 禁樵採 過者下馬”

80) 이정훈, 『『舊三國史』의 편찬시기와 편찬배경』, 『역사와 실학』 제31집(2006), 62~69쪽.

81) 이도학,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 『舊三國史』와 관련하여」, 『한국사상사학』 제40집(2012), 395쪽.

## V. 맷음말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을 주장하여 국호도 ‘고려’라고 하였으나, 후삼국 통일 이후에는 고구려 계승과 관련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993년 거란의 침략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위한 시조관 정립이 요구되었고, 주몽과 동명의 존재가 주목받게 되었다.

주몽과 동명은 『삼국사기』에서 동명성왕으로 일체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 시점에 대해 고구려 말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천남산묘지명」을 통하여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양자는 서로 구분되어 인식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동명왕이라는 존재로 일체화 된 모습은 1011년에 처음으로 확인된다. 즉 고구려 말기부터 1011년 사이에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가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인의 착오로 일체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인의 한문 이해 수준이 높았다는 점과 중국의 조서에서 시조로서의 주몽이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착오로 인한 혼용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는 거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결속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현종은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나주로 봉진하면서, 후백제 지역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또한 거란의 고구려 계승이라는 선동에 한반도 북부의 민심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였다. 결국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인 동명을 주몽으로 일체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구삼국사』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삼국사기』 또한 『구삼국사』의 영향을 받아 주몽과 동명이 동명성왕으로 일체화된 모습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水經注』, 『論衡』, 『三國志』, 『梁書』, 『魏書』, 『北史』, 『舊五代史』, 『新五代史』, 『宋史』, 『遼史』, 『金史』, 『元史』,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新撰姓氏錄』, 『泉男產墓誌銘』.

### 2. 단행본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李道學,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고구려·백제·낙랑 편』. 駕洛國事蹟開發研究院, 1997.

### 3. 논문

金光洙, 「高麗朝의 高句麗繼承意識과 古朝鮮認識」. 『歷史教育』 43, 1988, 91-107쪽.

김수미, 「백제 시조 전승의 양상과 변화 원인」. 『歷史學研究』 66, 2017, 1-36쪽.

金毅圭, 「高麗前期의 歷史認識」, 『韓國史論 6: 韓國史의 意識과 叙述』. 國사편찬위원회, 1979, 23-34쪽.

박용운, 「고려시기 사람들의 高麗의 高句麗繼承意識」. 『북방사논총』 2, 2004, 155-198쪽.

朴漢禹, 「高麗王室의 基源: 高麗의 高句麗繼承理念과 관련하여」. 『史叢』 21 · 22, 1977, 93-111쪽.

\_\_\_\_\_,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고구려연구회, 1999, 69-86쪽.

송영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渤海 유민의 高麗 이주 양상과 특징 검토」. 『동아시아고대학』 46, 2017, 137-172쪽.

안병우,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적 계승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117-139쪽.

이도학, 「檀君 國祖 意識과 境域 認識의 變遷: 『舊三國史』와 관련하여」. 『한국사상 사학』 40, 2012, 377-410쪽.

李龍範, 「遼代 東京道의 渤海遺民」. 『史叢』 17 · 18, 1973, 23-38쪽.

이원배, 「고구려 시조명 '東明'의 성립과정」. 『한국사연구』 146, 2009, 1-30쪽.

이정훈, 「『舊三國史』의 편찬시기와 편찬배경」. 『역사와 실학』 31, 2006, 53-82쪽.

임기환,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28, 2002, 5-42쪽.

임상선, 「渤海人の契丹内地로의 강제遷徙와居住地檢討」. 『高句麗渤海研究』 47, 2013, 185-215쪽.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역사와 담론』 19 · 20, 1992, 43-66쪽.

정원주, 「高句麗 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高句麗渤海研究』 33, 2009, 43-67쪽.

조경철,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4-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3, 2006, 5-38쪽.

채미하,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국가체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143-176쪽.

최덕환,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 85, 2012, 259-303쪽.

河炫綱,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研究』 8, 1975, 12-20쪽.

## 국 문 초 록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의 시조가 동명성왕(東明聖王)으로, 중국 정사에서는 고구려 시조가 주몽(朱蒙)으로 기록되었다. 기준의 연구에서 동명(東明)과 주몽이 별개의 인물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동명과 주몽이 일체화되어, 『삼국사기』에 동명성왕이라는 인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국초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이 존재하였다. 고려라는 국호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서희(徐熙)와 소손녕(蕭遜寧)의 담판에서도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구려 멸망 이후나 고려 초기에 사람들의 혼동으로 주몽과 동명의 일체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뛰어난 한문 해석 능력을 보유한 고려인들이, 중국 정사에서 명확히 구분된 동명설화와 주몽설화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둘째, 중국에서 고려에 보낸 조서에서 이미 주몽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셋째, 시조관(始祖觀)은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되므로, 잘못된 인식이 개입되어 시조관을 정립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1011년에 동명왕(東明王)의 사당에 훈호(勳號)를 더해준 것을 기점으로, 부여의 시조인 동명을 고구려의 시조 주몽으로 일체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백제가 동명을 시조로 하였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주몽과 동명을 일체화시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변동시켰다. 즉 고려는 고구려 중심의 시조관을 정립하여 민심을 규합하려고 시도하였고, 후백제인들에게 고구려와 백제는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을 주입시켰다. 이러한 고려의 의도는 『구삼국사(舊三國史)』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투고일** 2018. 6. 19.

**심사일** 2018. 7. 5.

**개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고구려(Goguryeo), 주몽(Jumong), 동명(Dongmyeong), 동명성왕 (Dongmyeongseongwang), 시조관(progenitorship)

## Abstracts

### The Conception on Jumong and Dongmyeo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dea of Dongmyeongseongwang in the Goryeo Dynasty

**Song, Young-dae**

*Samguksagi* (三國史記) records Dongmyeongseongwang (東明聖王) as the founder of the Goguryeo (高句麗) Kingdom, whereas the name of Jumong (朱蒙) is mentioned as its progenitor in official Chinese history. Earlier studies have clarified that Dongmyeong (東明) and Jumong are not the same figure.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why the two different persons came to be merged into one. The Goryeo (高麗) Dynasty held on to the idea of its being the successor of Goguryeo from the initial period. This is clearly reflected in its name and reverberates in Seo Hui's (徐熙) diplomatic negotiation with Xiao Xunning (蕭遜寧) of the Khitan Liao Dynasty of China.

For several reasons, it is unlikely that the idea of their being the identical person was created from a misconception of people after Goguryeo's fall or in the early Goryeo period. Firstly,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Goryeo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haracter, they would not have been confused with the mythical stories of Jumong and Dongmyeong who were treated as two separate figures in official Chinese history. Secondly, the existence of Jumong was clearly referred to in Chinese memoranda sent to Goryeo. Lastly, forming a misconstrued idea of foundership based on a wrong perception is unfathomable, considering that it is a matter related with national identity.

It is believed that the integrated identification of Dongmyeong and Jumong began with the granting of a posthumous epithet to Dongmyeong's shrine in 1011. At the same time, by merging Baekje's progenitor, Dongmyeong, with Goguryeo's Jumong,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Baekje was formulated. In other words, Goryeo tried to bring the people together based on the Goguryeo-centered notion of progenitorship and inculcate the people of Later Baekje (後百濟) with the idea of the same origin.